

제공일자	2014. 10. 6(월)	담당자	윤성훈 연구조정실장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3775-9115)	연락처	3775-9016
			총 9매

제목 : 저성장 · 저금리 장기화에 부합한 경영전략 필요

보험연구원(원장: 강호)은 10월 7일(화) 오전 7시 30분부터 조선호텔(소공동) 오키드룸에서 제39회 보험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하였다. 동 조찬회에서 보험연구원 윤성훈 연구조정실장은 「201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발표하였고,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서비스 국장은 「2015년 보험정책 방향(가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세계경제 회복세 확대로 경제성장을 3.7% 상승

먼저 발표에 나선 윤성훈 실장은 2015년 우리나라 경제는 선진국의 경제성장세 확대로 수출이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 소비의 본격적인 회복이 어려워 2014년보다 0.1%p 상승에 그친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5년 경기가 개선되고 원화강세 추세가 완화된 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4년 1.6% 대비 0.4%p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국고채(3년) 금리의 경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하반기 예상됨에 따라 上底下高의 모습으로 연간 평균으로는 2014년 평균인 2.6%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 상승과 이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감소, 신흥국 통화불안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연간 평균 2014년 1,049원과 유사한 수준인 1,040원으로 추정하였다.

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는 해외경제의 경우 미국의 통화정책 기

조 변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우려, 지정학적 불안 확대 등을 꼽았으며, 국내경제의 경우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리고 엔화 약세를 언급하였다.

보험산업, 계속보험료 위주의 성장으로 5.2% 증가

보험산업의 경우 2015년 들어 2012년 세제개편 영향의 기저효과가 완전히 사라지고 가계의 자금 잉여가 연금과 보험으로 저축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저축성보험 중심으로 성장세를 회복하여 수입보험료는 2014년보다 1.7%p 높은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2015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2년 세제개편 영향의 기저효과가 남아있던 2014년 보다 3.0%p 상승한 5.4%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저축성보험 회복에 더해 보장성보험도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단체보험이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손해보험은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이 높아짐에 따라 손해보험의 고성장을 이끌었던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어 2015년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등의 저성장으로 2014년보다 0.5%p 낮은 4.8%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윤성훈 실장은 보험산업을 둘러싼 가장 큰 환경 변화로 첫째, 저성장·저금리·인구고령화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 정착, 둘째, 보험산업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를 포함한 보험산업 규제 변화를 거론하였고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경영 및 정책과제로 ① 뉴 노멀 시대의 경영전략 모색, 이의 연장선에서 ② 신성장동력 발굴노력 지속과 ③ 비용관리 효율화, 그리고 ④ 보험산업 규제 변화 대응 등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금의 경제·금융상황이 경기 순환상 Recession이 아니라 인구고령화, 투자 부진, 소득분배구조 악화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장기화될

현상(뉴 노멀)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금융상황에 맞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체질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기둔화에 따른 저성장 시기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저성장 시기의 경영전략은 분명하게 달라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새로운 경제·금융상황에서 보험산업이 지속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수익원 발굴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해외사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가 되었으며, 인구고령화 및 안전의식 제고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고 있는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과 배상책임보험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셋째, 새로운 경제·금융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수익성을 유지하고 성장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비용관리가 중요함도 역설하였다. 초회보험료보다는 계속보험료 위주의 성장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비용구조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등 인력, 상품, 프로세스 전반의 비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넷째, 한편, 단기적인 시계에서는 효율 선진화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소비자신뢰 개선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는 정부의 보험산업 규제 변화에 대해 효과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보험업계는 가격 결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규제가 변화됨에 따라 가격결정능력 향상과 더불어 경쟁심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이러한 자율성 강화가 모집질서 확립과 소비자권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보험산업 규제 변화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정책 및 감독당국에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무건전성 강화에 대비하여 위험 및 자본관리 뿐만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 개선도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첨부 : 『201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요약 및 2015년 보험산업 및 경제 주요 전망치 각 1부.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

『201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요약

◆ 경제 동향과 전망

□ (실물경제) 2015년 국내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개선으로 수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2014년보다 0.1%p 높은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동향: 2014년 국내경제는 민간소비의 제한적인 회복, 제조업 수익성 제고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 전환,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2013년(3.0%)보다 0.6%p 상승한 3.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와 완만한 생산자물가 회복세로 2013년보다 0.3%p 상승한 1.6% 오를 전망이다.

○ 전망: 2015년 국내경제는 선진국의 경제성장세 확대로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내수가 소폭 개선될 것이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4년보다 0.1%p 높은 3.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민간소비는 취업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명목임금 증가율 하락, 전세가 상승 및 월세 비중 증가, 노후 대비 부담, 가계부채 증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2014년에 비해 0.3%p 상승한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는 기저효과와 견조한 수출 증가세,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 등에도 한계기업 비중 확대에 그 증가폭이 제한되어 6.1% 증가할 전망이다.

- 2015년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른 교역량 증가로 수출은 7.0%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설비투자 증가로 수입도 자본재를 중심으로 7.0% 늘어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는 경기가 소폭 개선되고 원화절상 추세가 완화된 2014년 보다 0.4%p 높은 2.0% 상승할 것임.

- 고용상황의 경우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와 여성 및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 등으로 고용률은 2014년보다 0.5%p 상승한 60.6%를, 실업률은 0.2%p 하락한 3.3%를 나타낼 전망이다.

□ (금융시장) 국채(3년)금리의 경우 2014년에는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 국내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상고하저의 모습으로 연간 2.6%를 기록하였는데, 2015년에는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상저하고의 모습으로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인 2.6%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원/달러 환율의 절상추세는 완화될 것으로 보임.

- **동향:** 2014년 국고채(3년)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하락, 국내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단기 금리차는 축소되었음.
 -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의 영향으로 2013년(1,095원) 보다 절상되어 평균 1,049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전망:** 2015년 국고채(3년) 금리는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국내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현 수준보다 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아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인 2.6%를 기록할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 상승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감소 및 신흥국 불안 가능성 등으로 2014년보다 소폭 절상된 1,040원 수준이 전망됨.

◆ 보험 산업 지표 전망

- **(개관)** 2015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이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손해보험이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성장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2014년 증가율보다 1.7%p 상승한 5.2% 증가가 전망됨.
 - 2014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2년 발표된 세계개편안에 따른 일반저축성보험 기저효과가 소멸되어 2.4%의 성장세 전환이 예상되며, 2015년에는 저축성보험 중심의 성장세 회복으로 명목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5.4% 증가가 전망됨.
 - 2014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소폭 회복으로 5.3% 증가가 예상되며, 2015년에는 경기 회복세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을 견인할만한 주도적 상품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명목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4.8%의 제한적인 증가가 전망됨.
- **(생명보험)** 2015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이 제한적인 성장을 하겠으나 저축성보험 성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4년에 비해 3.0%p 상승한 5.4% 증가가 전망됨.
 - 2015년 보장성보험(종신·CI·상해·암·질병 등)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수요 창출 노력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연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인 혁신 상품 부재와 소비자 권익 강화로 판매가 제한되면서 4.5%의 성장이 전망됨.
 - 2014년 보장성보험은 보험회사들의 보장성보험 판매 강화 노력에 따라 노령층, 유병자 대상 질병보험과 종신보험 신계약이 증가되었으나, 리스크관리를 위한 보장축소 및 판매중단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15년 저축성보험(생사혼합·생존·변액유니버설·변액연금)은 기저효과 소멸, 상대적 고금리 및 세제 혜택 등으로 일반저축성보험 수요가 회복될 것이나, 경제성장 개선이 소폭에 그치고 가계소득 증가 부진 등으로 저축여력 개선이 크지 않아 성장률은 5.0%에 그칠 것으로 보임.
 - 2015년 기저효과 소멸, 타금융권대비 상대적 고금리 및 세제 혜택 등으로 일반저축성보험 수요가 예년수준으로 회복되고 변액저축성보험도 계속보험료 위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저축성보험은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른 FY2012의 일반저축성보험 기저효과가 금년 1/4분기까지 크게 나타남에 따라 2/4분기부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됨.
 - 2015년 단체보험(일반단체보험·퇴직연금·퇴직보험) 수입보험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등으로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신장하면서 10.8%의 고성장이 전망됨.
 - 2014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의 단계적 상향조정과 금리하락에 따른 적립금 납입 증가로 수입보험료가 증가하고 있음.
- **(손해보험)** 2015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경기 회복세가 소폭에 그칠 것이 예상되고 뚜렷하게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이 부재하여 4.8%의 제한적 증가가 전망됨.
- 2015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14년과 유사한 수준의 초회보험료 유입과 안정적인 해지율 유지 등으로 5.8% 증가가 전망됨.
 - 장기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의료수요 확대,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노력 등이 신규수요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높은 수준의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장기 저축성보험은 타 금융권 저축상품 대비 금리경쟁력과 비과세 혜택 등으로 소폭의 신규수요 회복이 예상되나, 저축여력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증가폭은 1.3%의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성장여력이 약화되어 0.2%의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 세액공제 혜택, 그리고 저성장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신규수요의 소폭 회복세가 예상되나, 계속된 초회보험료 저성장으로 성장여력이 약화되어 있어 증가폭은 소폭에 그칠 것임.
 - 2015년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300만 원의 추가적인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과 확정급여형 최소적립비율 70% 상향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어져 5.6% 증가가 전망됨.

- o 2015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에 의존한 3.7% 증가가 전망됨.
 - 2014년에 미반영 된 영업용·업무용 자동차보험료 인상분이 2015년 상반기에 반영될 것이나, 주행거리 연동특약, 블랙박스 할인특약 등 할인형 상품 확대와 직판채널 확대 추세도 지속될 것임.
- o 2015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 회복세가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여 2014년(2.1%)에 이어 2.8%의 저성장이 전망됨.

2015년 보험산업 및 경제 주요 전망치

1.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치

(단위 : 억 원, %)

종목		FY2012		FY2013 ¹⁾		2014(E)		2015(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 보험	보장성	319,188	7.4	248,094	4.3	348,094	5.7	363,758	4.5
	저축성	759,741	50.6	448,383	-17.2	652,111	-2.2	684,739	5.0
	개인소계	1,078,929	34.6	696,477	-10.6	1,000,205	0.4	1,048,497	4.8
	단 체	74,156	-3.1	75,891	25.7	111,027	23.8	122,977	10.8
	합 계	1,153,086	31.3	772,367	-8.0	1,111,232	2.4	1,171,474	5.4
손해 보험	장기손보	401,896	17.7	315,478	5.6	444,216	6.1	470,022	5.8
	저축성	124,559	27.8	89,300	-4.3	119,081	-1.2	120,605	1.3
	상해·질병	166,786	14.2	142,314	16.1	212,459	13.9	235,481	10.8
	기타 ²⁾	110,551	12.9	83,864	1.1	112,675	1.1	113,936	1.1
	연금부문	74,337	11.1	62,991	6.3	82,616	5.8	84,975	2.9
	개인연금	41,489	21.1	31,829	3.1	41,344	-2.6	41,407	0.2
	퇴직연금	32,840	3.3	31,152	9.8	41,271	15.9	43,568	5.6
	자동차	128,416	-1.5	97,435	0.4	134,091	4.1	139,010	3.7
	일반손보	80,773	13.9	61,679	1.5	83,413	2.1	85,786	2.8
	화재	3,293	25.0	2,413	-2.9	3,142	-2.4	3,126	-0.5
	해상	8,230	-5.4	6,016	-10.7	7,638	1.7	7,833	2.6
	보증	15,816	4.2	11,238	-4.8	15,098	-1.0	15,403	2.0
	특종 ³⁾	53,433	20.4	42,012	5.6	57,535	3.3	59,424	3.3
	합 계	685,422	12.4	537,582	4.2	744,337	5.3	779,793	4.8
전 체		1,838,508	23.6	1,309,949	-3.4	1,855,568	3.5	1,951,267	5.2

주: 1) FY2013 보험료는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함.

2) 기타에는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3)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과 권원보험, 부수사업이 포함됨.

4)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E)	2015(F)
실질GDP	6.5	3.7	2.3	3.0	3.6	3.7
민간소비	4.4	2.9	1.9	2.0	2.6	2.9
설비투자	22.0	4.7	0.1	-1.5	6.0	6.1
건설투자	-3.7	-3.4	-3.9	6.7	2.1	2.9
지식생산물투자	7.9	6.9	8.6	7.3	7.2	8.0
재화수출	13.5	17.1	4.4	4.5	6.3	7.0
재화수입	19.1	17.6	1.9	1.2	5.4	7.0
고용률	58.7	59.1	59.4	59.5	60.1	60.6
실업률	3.7	3.4	3.2	3.1	3.5	3.3
경상수지	288.5	186.6	508.4	798.8	766.0	660.0
상품수지	479.2	290.9	494.1	805.7	854.0	778.0
수출	4,637.7	5,871.0	6,035.1	6,171.3	6,380.0	6,635.2
(증가율)	(27.4)	(26.6)	(2.8)	(2.3)	(3.4)	(4.0)
수입	4,158.5	5,580.1	5,541.0	5,365.6	5,526.0	5,857.6
(증가율)	(31.6)	(34.2)	(-0.7)	(-3.2)	(3.0)	(6.0)
소비자물가	3.0	4.0	2.2	1.3	1.6	2.0
국채(3년) 수익률	3.7	3.6	3.1	2.8	2.6	2.6
우량회사채(3년) 수익률	4.7	4.4	3.8	3.2	3.0	3.0
원/달러 환율	1,156	1,108	1,127	1,095	1,049	1,040